

2020 서울시립대학교 우수 원격강의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최우수상

김현숙 (사회복지학과)

함께 이겨내는 수업, 의료사회복지론

| 우수상

윤정우 (경영학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수민 (철학과)

온라인 강의로 처음 만난 철학의 세계

홍해찬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제가 5가지 정도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 장려상

나지석 (도시과학대학원)

좌충우돌 나의 비대면 접속기

오인주 (경영학부)

교수님의 성실함으로 만들어진
‘효용이 높은 무위험자산’, 재무관리

이경엽 (세무학과)

미라꼴 강의

이재준 (경영학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최영준 (국사학과)

토양을 기반으로, 한 그루의 나무로 성장한 수업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 최우수상

함께 이겨내는 수업, 의료사회복지론

김현숙 (사회복지학과)

갑작스러운 팬데믹, 대학도 발각 뒤집혔다. 어쩔 수 없는 전면 재택수업 상황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셨다. 학생들도 새로운 수업 방식에 금방 적응하여 한 학기 재택수업을 나름의 방식으로 잘 버텨내었다. 나도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나 보람차게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 다행스러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들 중 김학령 교수님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이 에세이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돋보이던, 김학령 교수님의 ‘의료사회복지론’을 말해볼까 한다.

‘의료사회복지론’은 몇 안 되는 사회복지의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우리학교에서 사라졌던 수업이다. 사회복지 분야 중에는 의료, 학교, 정신건강, 공무원 등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중에서도 의료사회복지는 병원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사정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경제적, 심리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전문분야이다. 즉, 의료사회복지사는 과도한 병원비를 부담하기 힘들어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공공 및 민간 후원기관을 연계해주는 일 등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사회복지론’은 이러한 업무의 이론과 실천을 학습하는 강의이다.

기쁜 마음으로 수강신청을 한 후 첫 OT를 들었다. 쉬운 수업은 아니었다. 매주 진행되는 출석 퀴즈, 30분 정도의 팀 발표, 직접 개입계획을 세워보는 개인 보고서 등 다양한 과제가 있었다. 그래도 초반엔 비교적 수월했다. 매주 PPT와 음성 녹음 파일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의 기초를 다져주셨다. 출석퀴즈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에듀클래스에 댓글로 작성하면 됐다. 기간도 넉넉했기 때문에 듣고 싶을 때 수업을 듣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려 노력하긴 했지만, 그 시간에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여유로웠다. 초반엔 비대면 수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족했다.

7주차에는 경희의료원 임성철 의료사회복지사님이 제공해주시는 특강이 있었다. 강의는 office365 기능을 이용한 비디오 스트리밍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의료사회복지사의 병원 내외 업무와 현주소, 전망 등을 실제 경험을 사례로 들어 알려주시니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지금 준비하면 좋을 것들을 조언 해주셔서 의료사회복지사를 생각하는 학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사실 특강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의자님께 질문도 하고 추후 연락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아가는 매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주셨고, 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서 질문을 남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대면 특강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다.

PPT를 통한 8주간의 이론 수업을 마치고 ZOOM을 이용한 팀 발표가 시작되었다. 사실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 약 30분가량 교수님의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것이다. 아무래도 처음 활용하는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옆에서 알려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우셨을 것이다. 교수님께서서는 미리 연습을 했음에도 이런 돌발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다 말씀하며 사과하셨다. 다행히 문제가 해결되고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진행하지는 못하고, 에듀클래스를 통해 남기도록 하였다. 우왕좌왕하

다가 끝나버린 아쉬운 첫 ZOOM 수업이었다.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조가 맡았다. 나는 동기들과 함께 ‘성인암’을 주제로 발표를 구성하였다. 만나지 않고 팀 발표를 준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걱정이 앞섰다. 간단한 의사전달은 SNS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모든 정보전달을 문자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우리도 화상통화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ZOOM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우리는 비대면이지만 얼굴을 마주보며 발표 방향과 구성,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었다.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하니 준비는 무척 수월해졌다. 나는 자료들을 수합해 정리하는 역할과 발표를 담당하기로 했지만, 전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 다른 조원들도 마찬가지였다. SNS를 활발히 이용하여 각자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면 바로 피드백을 주었다. 발표 내용을 함께 구성하고 PPT가 만들어지면, 그에 대한 피드백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다. 나는 화면공유를 통해 학우들에게 PPT를 보여주었고, 성인암의 개념, 현황을 설명하고, 개인 및 가족 내부적 어려움과 외부 체계적 어려움에 대해 사정하였다. 사정한 어려움들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은 ‘지역사회 자원’ 동원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우리 조는 특히 ‘간병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렸다.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은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곁에서 함께 고통을 받는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당연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지역 자활센터 등에서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는 방법을 소개하며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평소 간과하던 부분들을 의료사회복지사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자원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14주차까지의 발표가 끝나고, 시험기간이 다가왔다. 기말시험은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비대면이지만, 오픈북 방식은 아니었다. 정해진 시간에 구글 설문지 링크에 접속해 객관식 답을 체크하고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시험 감독은 ZOOM으로 이루어졌다. 학우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ZOOM에 접속하고, 손과 컴퓨터 화면을 비춰야 했다. 시험 범위는 PPT로 이론 수업을 하던 8주차까지의 내용이었다.

의아하긴 했다. 나는 오픈북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응용해야 하는 서술형 시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채점은 어려울지라도 학생들이 정말 이론을 이해했는지 검증하고, 적용 능력을 길러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대면이지만 오픈북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 정말 지켜질지,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단순 암기식이 아닌지 걱정되었다.

이 걱정은 문제 유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다. 암기식 문제도 여럿 있었지만, 사례를 보여주고 알맞은 답을 찾아내는 유형을 통해 평소에 이해하고 있던 학생들이 답을 맞힐 수 있게 하였다. 주어진 시간을 다 쓸 정도로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었다.

정신없이 기말시험을 치르고도 남은 것이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작성했던 개인과제 최종 제출이 남았다. 8주차에 중간제출을 하고, 피드백을 받은 후 수정하여 16주차에 최종 제출을 하는 방식이었다. 내용은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관점과 이론을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개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사례는 영화, 소

설, 다큐멘터리 등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등장인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었다. 나는 영화 「마이 시스터즈 키퍼」(닉 카사베츠, 2009)를 선정하여 백혈병에 걸린 15세 여아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개인과제는 ① Social Study, ② Assessment(사정) ③ Intervention(개입) 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Social Study’ 단계에서는 환자의 일반적 사항과 가족 및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한다. 이때 환자의 가계도와 생태도를 그려보는데, 이는 ‘개입’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작업이다. 실제로 나는 환자 가족들과 친한 환자부의 직장 동료가 심리적지지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작성하였다. 환자의 건강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의사와 달리, 환자를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정’과 ‘개입’ 단계에서는 개입이 필요한 문제와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의 강점들을 사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입 계획을 설정해보는 것이다. 나는 환자 가족 스스로가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돕는 ‘레질리언스 모델’을 채택해 이 단계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개입방법 등을 생각해보았다. 또한, 수업시간에 들었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치료비용 지원 방법도 제시하였다. 제도적인 측면까지 파악해야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개인과제를 마무리할 때쯤엔 의료사회복지사가 왜 전문직인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사회복지, 의료, 법률, 경제지원제도 등 다방면의 지식을 체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임에도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이 개인과제 자체에서도 큰 감명을 받았지만, 더욱 인상 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수님의 피드백이었다. 10장이 넘는 과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과 전체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셨다. 약 60명 정도의 수강생 모두에게 이러한 피드백을 주셨다는 게 정말 놀라웠다. 나는 죽음을 앞둔 환자보다 가족에게 초점을 맞춘 개입방법이 의료사회복지사로서 타당한 접근방법인지 질문했는데,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고문보다는 죽음 이후 가족들이 적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조언해주셨다. 이를 통해 의료사회복지사가 취해야 하는 윤리적 입장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학기동안 나의 사회복지 이해의 폭을 넓혀준 ‘의료사회복지론’이 종강을 맞이했다. 솔직히 말해 완벽한 수업은 아니었다. 미숙한 수업 진행 방식으로 인해 수업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예정된 날보다 지연되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한 충격이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수업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공모전을 접하자마자 ‘의료사회복지론’을 떠올린 이유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적응해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ZOOM을 통해 매주 소통하고, 과제는 단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성장할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이 정한 토론 주제에 다른 학생들은 언제든지 자유로운 시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수님께 질문도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미숙한 방식들도 나름의 이

유와 고민이 느껴졌고, 학생들의 의견을 발빠르게 수용하여 더 나은 방식을 찾아갔다. 처음부터 완벽했다기 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수업으로 남는다.

대면수업으로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예기치 못한 혼란은 교수님의 풍부한 지식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했다. 녹음으로 들은 수업 내용과 글을 통해 접한 피드백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대면수업 이었더라면 분명 더 많은 것을 전달해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며 수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더욱 인상 깊게 남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다시는 없을 예정이라는 보장은 없다. 당장 며칠 뒤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원래의 삶이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의료사회복지론’이 보여주었던 변화처럼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이 수업은 그 과정을 항상 학생들과 함께 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변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 점에서 김학령 교수님의 ‘의료사회복지론’을 우수 원격강의로 추천한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해주신 김학령 교수님과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해주어 함께 지적 성장을 이룬 학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낸다.



| **우수상**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윤정우 (경영학부)

대학에 입학하고 새로운 수업을 들을 생각에 설레던 작년 1학년, 수강신청을 하기 전 심혈을 기울여 시간표를 작성하였다. 그렇게 교양 수업들을 신중하게 골랐지만, 결론적으로 열심히 들은 수업은 별로 없었다. 본래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고 게을러 수업을 빠지는 일도 다수, 새내기 특권이라는 이유로 놀러 다니기 바빴다. 그렇게 2학년이 되고, 작년의 열정과 다르게 전공 수업을 정하고 시간이 맞는 아무 강의나 시간표에 끼워 넣었다. 어차피 교양 강의를 전공보다 중요도가 떨어지고, 1학년 때 수업도 별 의미가 없었던 터라 대충 참여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뀐 이례적인 상황, 대충 고른 교양 강의는 한 학기 동안 나의 회의적인 시각을 통째로 변화시켰다.

‘서양문화와철학의발생’, 철학과는 거리가 멀고 접해본 적도 없는 나에게는 막연히 어렵고 추상적인 학문으로만 느껴졌다. 교수님께서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매주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지를 하셨다. 교수님께서 촬영한 강의 동영상을 보고, 과제를 수행하고,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질문과 토론을 하는 식이었다. 강의는 과제 제출과 질문과 답변, 강의 동영상 시청과 실시간 수업까지 팀즈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다른 강의를 중에서는 전공임에도 예전 강의 영상만 올려놓거나, 전면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강의 자료만 올려놓는 등 성의 없는 강의들도 있었다. 그에 비해 비대면 강의라는 처음 겪는 상황에 최대한 질 좋은 강의 동영상을 만들고, 실시간 수업을 통하여 수강생들과 소통하려는 교수님은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다.

한 학기 동안 총 7개의 철학 텍스트들을 읽었다. 그리스 서사시부터 플라톤의 철학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읽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텍스트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는 ‘영웅’, 서양의 철학사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인간상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 수업의 주제였다. <일리아스>, <오뒷세이아>,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구름>, <소크라테스의 변명>, <향연>을 읽고 각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과 자신의 생각이 담긴 코멘트를 과제로 제출하였다. 교수님께서 과제에 달아주신 코멘트를 보고, 강의 동영상의 내용을 숙지하여 매주 실시간 수업에서는 과제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성적은 과제물과 실시간 수업 중 예고 없이 치른 퀴즈, 그리고 중간, 기말 리포트로 평가되었다.

수업 초반에 읽은 철학 텍스트 중에서는 익숙한 내용도 있었다. 어렸을 적, ‘그리스 로마신화’라는 만화책을 통하여 접한 내용일 것이다. 단순히 재미로만 읽었던 내용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려니 어려웠다. 강의 동영상은 과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업로드되었는데, 교수님의 생각이 아닌 수강생 본연의 생각을 과제에 담아내라는 교수님의 뜻이었다. 처음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었으나, 교수님의 코멘트와 실시간 수업에서 다른 수강생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텍스트에 대한 간

단한 감상평으로 그쳤던 초반의 과제와 달리, 강의 후반부에는 실시간 수업에서 나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직접 읽은 텍스트의 내용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설명이 궁금해져 강의 동영상도 더욱 열심히 보게 되었다.

중간 및 기말 리포트는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논의를 발전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중간 리포트 때에는 수업한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에 그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교수님께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향에 대해 피드백을 주신 것을 토대로 최대한 나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결과, 기말 리포트 때에는 우수 리포트로 선정될 수 있었다. 학기 초반에는 철학 텍스트들을 접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과제와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접하면서 발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에 ‘서양문화와철학의발생’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강의였다. 강의 동영상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 활용한 강의 방식, 교수님의 즉각적이고 빠른 피드백, 다른 수강생들과의 생각 공유 등 나뿐만이 아닌 다른 수강생에게도 다양한 이유에서 만족스러운 강의가 되었을 것이다. 학기 초반부터 예측 가능성 높은 수업 운영 방식으로 대면 강의보다 부족함 없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님과의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수시로 제출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 면에 있어서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해당 강의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교수님을 비롯한 수강생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하셨다. 다양한 철학 텍스트들을 접하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이상적인 인간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해왔다. 명예 중심적 사고의 영웅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신념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모습 등 이상적이게 여겨졌던 영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인간적인 지혜’란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인정하고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해 가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

비대면 강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번 학기는 모두에게 특별한 학기가 되었을 것이다. ‘서양문화와철학의발생’은 특히 나에게 더 잊히지 않는 수업이 될 것이다. 대학 수업과 나의 태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작년과 달리,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였고, 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강의 내용에만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교수님을 본받아, 앞으로는 나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 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재택 수업을 통하여 앞으로의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수업 내용과 운영 면에 있어서 이러한 강의가 많아진다면 많은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강의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다양한 논의를 토대로 더욱 발전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적극 추천한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강의로 인하여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태도에 있어서 나처럼 자극을 받는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 우수상

온라인 강의로 처음 만난 철학의 세계

하수민 (철학과)

교양과목의 마지막 과제를 제출함과 동시에 나는 3월부터 꿈에 그리던 종강을 맞았다. 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무사히 넘긴 셈이다. 처음 마주하는 것들의 연속이었다. 아마 비대면 학기 운영이라 더 그랬을 것이다. 강의 방식은 물론이고 배우는 내용들도 새롭기 그지없었다. 어려운 강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인지 한 학기 동안의 ‘온라인 대학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생각했던 것들을 토대로 풀어놓을 수 있는 ‘썰’들이 꽤 많이 쌓여 있다. 그 가운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서도식 교수님의 ‘철학통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철학통론’은 우리 학교 철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졸업 전에 들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이다. 철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 강의로 교과과정 상 1학년 1학기에 듣게 된다.(부전공생, 복수전공생, 편입생들도 함께 듣는다.) 철학에서 주로 다루지고 있는 문제(ex: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들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그 문제들에 대해 여러 철학자들이 어떤 답을 왜 내놓았는지(ex: 스피노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오히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등을 짚어보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듣다보면 철학에 어떤 연구 분야가 있는지에 대한 대강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 전보다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 학기 동안 내가 들은 강의들(전공1개, 교양6개) 중 가장 ‘이것은 온라인 강의다.’라고 의식하지 않았던 강의는 ‘철학통론’이었다. 아마 서도식 교수님(이하 교수님)의 철저함과 조교 선생님의 노고 덕분이었을 것이다. 에듀클래스에 강의 자료를 올려주셨던 1,2주차 때보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3주차 때부터 그러한 면모는 더욱 빛을 발했다. 교수님께서서는 실시간 강의를 처음 시작하신 3주차부터 ZOOM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셨다. 다른 강의는 학기 초에 교수님들께서 프로그램 사용이 익숙지 않으셔서 시간이 지체되고 정신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에 ‘철학통론’은 교수님께서 프로그램을 완벽히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강의 진행이 처음부터 원활한 편이었다.

매 수업마다 교수님의 주문 사항은 ‘가능한 사람은 비디오를 켜고 얼굴을 보이면서 강의를 들어라.’는 것이었다. 매번 나를 비롯한 10명 정도가 비디오를 켜는 편이었다. 비디오를 켜니 비디오를 끄고 있을 때보다 딴 짓을 덜하게 되고, 교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들어 집중력이 높아졌다. 교수님께서 강의 중 때때로 화면에 뜨는 학생 이름을 언급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좋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효과도 있었다. 교수님께서서는 까만 화면만 보고 강의하면 말이 잘 안 나온다는 너스레를 떠셨지만 실제로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대면 강의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이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편 조교 선생님께서는 ZOOM 회의실 번호와 비밀 번호를 강의 시작 10분 전에 개인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셨다. ZOOM으로 진행되는 다른 강의들은 에듀클래스에만 링크를 올려주시거나 교수님의 개인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찾아야 강의실에 입장해야 해서 번거로운 면이 있었다. 그에 반해 ‘철학통론’의 경

우는 바로 문자메시지를 보고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 또 10분 전에 메시지가 오는 것이 마치 알람처럼 느껴져서 보다 준비된 자세로 강의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출석 체크 또한 조교 선생님이 담당하셨다. 매 강의마다 ZOOM 회의실을 모니터링 하면서 1시간 단위로 출석을 체크하셨는데 이 덕분에 출석을 부르느라 강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일이나 마이크가 켜지지 않아 대답을 못해서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일 없이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8주차와 15주차에 치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시간 동안 즉석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정해진 시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오픈북 시험이라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책이나 강의 PPT를 참고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시험 문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 논리를 전개하는가.'이므로 오픈북이라는 점이 특별히 변별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또한 제출 시간을 넘기는 경우 5분까지는 감점이, 10분까지는 0점 처리가 되며 일체의 네트워크 문제를 감안하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하셨다. 다소 엄격하긴 하지만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 학생 입장에서 안심이 되었다. 물론 철학과의 시험 자체가 서술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들에 비해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철학통론' 강의를 학교에 등교해서 들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은 있다. 대면 강의였다면 보다 생생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이루어졌을 것이며 강의 중 교수-학생 간의 소통이 잘 되었을 것이다. 또한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가 즉석에서 궁금한 점을 여쭙고 다른 동기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불가피한 비대면 강의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통론' 강의를 통해 교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강의 목표나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 등은 비교적 잘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철학통론'을 들으면서 피상적으로 "대강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던 철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철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큰 틀을 잡게 되는 등 입문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내게 '철학통론' 강의는 철학의 세계로 향하는 안내자 역할도 되어주었다. 조금 과장을 섞자면 '철학통론'을 들은 후의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한 학기 동안, '철학통론' 수업을 통해 나는 철학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두려움과 선입견 등을 걷어낼 수 있었다. 사실 꽤 오랫동안 '철학 수업'은 고대 그리스의 원형 극장 같은 강의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윤리과목들을 꽤 좋아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기회가 되면 철학을 배워보고 싶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열띤 토론'에서 살아남을 만큼 말주변이 있고 논리적인 인간인지는 의문이었다. 강의실 구석에 꿇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다 중간에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다행일 거란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당연하게 보이는 것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한다. 강의 첫

시간에 처음 들었던 이 말이 굉장히 감명 깊었던 기억이 난다. 처음부터 말을 잘하고 정교한 논리를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태도를 내면화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내게도 발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이, 또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나의 생각이 과연 옳은지 자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논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고 두려워했던 토론도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일 뿐,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상대였음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다. 그러자 철학이라는 학문에 조금씩 정이 들었고,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히 흥미를 잃지 않고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학통론’ 강의는 전공과목, 그것도 전공 필수 과목이라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부전공, 복수전공 등)이라면 어차피 졸업 전 누구나 들어야 하기에 “너무 좋은 강의입니다, 졸업 전에 꼭 들어보세요!”라고 구구절절 추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철학 전공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전의 나처럼 철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면서도 토론, 논리 등 그 외적 부분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철학과에 와서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는 학우들이 계시다면 ‘철학통론’이 그 분들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 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철학통론’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 들었던 ‘철학을 배우는 이유’를 지면에 옮기며 글을 마친다.

“철학은 성찰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학문이다.”



| 우수상

**‘제가 5가지 정도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홍해찬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저는 사실이 변하면 제 결론을 수정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현대 거시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한 말이다. 이는 William Hart 교수님의 새로운 <영어 면접과 발표>강의를 잘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번 학기에는 YouTube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다.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맞추어 스트리밍 방송을 하시고,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방송을 듣고 채팅창으로 교수님이나 다른 학생들과 소통한다. 그리고 주 3교시가 수요일에 1시간 목요일에 연달아 2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요일 별로 수업 방식이 다르다.

수요일에는 ‘Presentation Appreciation’이 진행된다. 여기선 한 명당 약 15분간 ‘boss’가 되어 수업을 이끈다. 이때 총 3가지를 해야 하는데, 불만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찾아온 후 다 같이 감상하기, 자신이 이 영상을 선정한 이유를 개진하기, 그리고 관련된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을 제시하며 학우들 전체가 벌이는 토론 이끌기가 그것이다. 시간을 채우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보면 오히려 부족하다. 청중들의 토론이 무척 활발하기 때문에, 언제나 토론 중간에 갈무리하고 다음 boss의 차례로 넘겨야 했다. 이때, 교수님은 청중의 일원으로서 마이크가 아니라 채팅창으로 소통하신다. boss가 일일이 답하기 힘든 수많은 의견들에 여러 반응을 보여주면서, 흐름 조절이나 대화 이어나가기 등으로 항상 토론을 더욱 살리기 위한 도움을 주려고 아낌없이 노력하셨다.

그리고 목요일 수업이 핵심이다. 이 과목이 웬만한 전공만큼 힘든 것으로 유명한 주된 이유이다. 실제로 강의 첫 시간에 교수님이 직접 ‘어렵고, 요구 사항이 많은 강의’이며 ‘상위권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거듭 말씀하실 정도이다. 홀수 주차 목요일에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돌아오는 짝수 주차 목요일에는 개인별로 녹화한 2~3분 길이의 프레젠테이션을 순서대로 감상한다. 그리고 다음 홀수 주에는 다시 교재 수업에 이어서 지난 주 발표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도 있고, 학기 내내 이 주기가 반복된다.

물론 가장 어려운 부분은 프레젠테이션 준비이다. 영어로 발표한다는 자체도 큰 산이지만, 비영어권 청중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다. 2분 30초 내외 동안 또박또박 말해줄 수 있는 영어 문장은 그렇게 많지 않은 데 반해, 흐름이 있는 여러 내용을 도입-본문-마무리의 구조로 만들다보면 3분이 아니라 6분 7분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필요해서 넣은 것들 중 무엇을 뺄지 생각하다 보면 응급환자의 어느 장기부터 살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의사의 기분이 이럴까 싶다. 실제로 시간을 넘겨서 5분대에 육박하는 영상을 매번 볼 수 있었는데, 나도 시간을 맞추려다 말을 너무 빠르게 한다는 피드백을 종종 받았다. 아마도 이를 고려하고 수업시간을 여유롭게 편성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제나 2시간을 꼭 채우곤 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며칠 내로 ‘Peer Review’가 이루어진다. 교수님이 에듀클래스의 게시판에 학우 각각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게시 글을 미리 작성하시는데, 우리는 이를 하나씩 열람하며 소감이나 개선할

점들을 댓글의 형태로 작성하면 되었다. 그럼 나중에 피드백을 받는 본인은 자신의 이름이 쓰인 글을 클릭하여 댓글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대면 수업 때는 발표를 듣는 동시에 종이에 한 줄씩 작성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수님이 일괄적으로 걷어서 칼로 오려낸 후, 받는 사람별로 모아서 한 묶음씩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게시 글을 하나씩 열람하고 댓글을 입력하면 되므로 번거로움이 많이 줄었다. 게다가 익명이 아니어서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직접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는데, 덕분에 피드백을 주는 데에 더 정성스럽고 더 자세하게 작성하게 되었고 스스로도 훨씬 따뜻하고 건설적인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었다.

발표 다음 주에는 점수 공개와 디테일한 개인별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25명 정도의 피드백에 꼬박 1시간이 걸리니 피드백이라기 보단 전문적인 코칭에 가깝다. 아직 많이 모자라니 더 노력하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의 효과가 산만하고 편집이 고르지 못하다”, “화면 전환이 빨라서 잘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안경에 화면이 비쳐서 시선을 분산시키니 촬영 시 디스플레이를 가리고 하라”고까지 알려주신다. 무조건 교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된 점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짚어주신다. 예를 들면 “진솔한 경험담으로 우리를 너의 세계에 끌어 들였다”, “도입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보기 좋다”, “이전과 달리 서있는 자세로 발표한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해주었다”,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인데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 등등, 듣다 보면 차후 어떤 방향으로 연습해야 할지 여러 모로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

제목에서 암시했듯, 교수님은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을 테스트하고 사용하셨다. 아마 전 교에서 제일 많은 수준이 아닐까 한다. 먼저, 한시적 개강 연기 시기인 2주차까지는 녹화된 강의를 YouTube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이를 모두가 시청하였다. 그 내용은 일방적인 전달 방식에 적합하도록 오리엔테이션과 교재 내용, 목표, 수강 대상 등등 고정적인 부분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원래라면 기말고사 주간에 예정되어있던 실시간 면접인 ‘Interview Test’의 예제 문항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글로 작성하여 내는 것이 과제였고, 이것으로 출석을 대체하였다.

중간고사 기간 전후로 과제 부담을 덜 겸 다양한 매체로 대화하면서 적절한 수업 방법을 찾아가는, 일종의 시범운영 시간도 가졌다. 이때 기존의 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 외에 학생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Zoom, Google Meeting, Skype를 같이 설치하고 활용하였다. 결국 실시간 토론이 가능할 만큼의 동시성을 제공하는 환경이 없어서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Interview Test도 과감히 생략하게 되었지만, 영어로 여러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변화가 생겼다. 실시간 대화의 차선택으로 Zoom을 통한 실시간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방식에 다시 적응해야 할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은 시

간을 늘려 주 3교시 전체를 할당하고, 요일과 발표 순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없고, 실시간으로 Peer Review를 작성해야 하지도 않으며, 감점 없이 가점만 있는 것으로 여러 모로 기말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셨다.

물론 과목의 특수성이 있었기에 이처럼 모험적인 시도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 전달해야 할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는 여타 전공과목들과는 달리 소통이 주된 목적이므로, 수업 내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또 다른 수업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수님도 이와 같은 특성을 인지하셨기 때문인지, 수업시간을 마치 시골 장터의 덤처럼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짹짹 채워주셨다. 아마 대면수업이었다면 초조하게 벽시계를 바라보며 힘들어했겠지만, 내 방 내 책상에서 잠시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을 마실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인지 체감되진 않았다. 또 혹여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실시간 화상 채팅을 열어주셔서 교수님과 말하기 연습을 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헌신과 더불어 현실적이고 열린 배움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셨다. 하루는 ‘발표 영상을 (3분을 한 번에 찍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므로) 여러 번 촬영한 후 이어 붙이는 편집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자신이 한 번에 펼칠 수 있는 기량보다 더 좋은 발표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역량을 평가하는 수업에서는 정말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었다. 문제는 녹화 후 편집에서는 그렇게 편집한 영상도 화면 전환 등으로 연속적으로 녹화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수님이 몇 주에 걸쳐 개인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실시간 대화 플랫폼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신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강의는 대면 프레젠테이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발표입니다. 따라서 보기에 자연스럽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습니다.” 현재 수단의 피할 수 없는 한계를 빠르게 수용하신 것이다.

이러한 제한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덕분에 화면과 나를 동시에 녹화하는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편집 기술을 눈치 안 보고 연습할 수 있었다.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면 조명과 카메라의 각도와 거리, 장소 선정 등등 미디어 장르의 엄청난 자유도를 느낄 수 있다. 적절하게 자막이나 주석을 넣어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었고, 보조 자료를 1초미만 단위의 타이밍에 맞게 움직이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 모두 대면 프레젠테이션이었다면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렇다고 필요한 역량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시간 프레젠테이션에서 고민하던 사항들도 같이 익히게 된다. 예를 들면 몸의 움직임과 방향과 손짓과 표정, 발성과 어조, 어떤 내용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 등이다. 범주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취지에서 달라진 점도 있지만 수많은 동영상 플랫폼이 등장한 현실에서 앞으로 더 활용도가 큰 소통 방식일 수도 있다.

내가 수강하면서 얻은 가장 큰 것은 나에게 필요한 진짜 영어를 익혔다는 점이다. 아마 수능 영어나 어학

시험을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분석하는 주입식 공부를 해봤을 것이다. 나도 많이 했었지만 최근에는 해외 드라마를 돌려보고 영화 대본을 찾아보며 나름 언어를 정말 언어로써 대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 수업은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공부’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실전이다. 이는 과목 이름의 원제 <Interview and Presentation>에서 드러나듯, 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수업인데 영어를 사용할 뿐인 것이다. 물론 한국인이 수강하니 당연히 영어도 익히겠지만, 불변의 1순위는 절제되고도 탁월한 발표로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느껴본 적도 없는 엄청난 영어실력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영어 공부의 성과는 올라간 성적표 숫자를 보며 무미건조하게 머리로 아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누가 뭐래도 스스로 느낀다. 별로 어렵지 않게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고, 눈 아프던 영어 문장이 큼직큼직하게 눈에 들어온다. 이를 제일 잘 느꼈을 때는 내가 과목별로 만들곤 하는 요약 노트를 거의 100% 영어로 작성하게 되었을 때이다. 간결함을 위해 문장을 많이 파괴하는 내용 정리의 특성상 잘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읽기 힘들 위험이 있는데, 의미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문장 구조를 영어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아마도 지식을 다양하게 넓히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어휘군의 영어를 더 깊게 익혔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문장 하나 넣고 빼기도 뻘뻘한 압축적인 문단을 손보다 보면 나의 의견을 말하는 문장들이 내 의도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단어나 전치사 하나하나 철저히 검증하고 찾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영어 문법 교정, 유의어-반의어, 어구 출현 빈도 등의 여러 툴도 제법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것을 다룬 만큼 얻은 것도 다양하다. 특히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온전히 나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새로이 가졌다. 이전의 프로젝트 형식의 발표들과 달리 주제가 ‘What I Most Want’였는데, 교수님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하셨다. 나는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내가 만든 것을 보여줄 얼마 없을 기회를 잡길 원했기 때문에, 기말고사 기간이었음에도 밤을 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담은 가사를 쓰고 영어로 랩을 했다. 물론 힘들었지만 뻘뻘한 기말고사 기간에 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활력소가 되었다. 다른 학우들의 발표를 듣는 것도 감동적인 연설, 개인적인 일화, 자라온 경험, 각각의 가치관 등등 통찰이 담긴 수많은 인생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William Hart 교수님은 훌륭한 스승님이 되어주셨다.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게 느껴졌고, 항상 모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셨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절대적인 점수의 상승이 바로 우리들의 실력 향상을 보여준다면 수고 많았다는 응원이 담긴 연설을 해주셨다. 그리고 종강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역량을 계발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 연계될 수 있는 교내 강의와 외부 프로그램을 알려주시는 등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해

주신 수강 목적을 인용하며 글을 마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옳은 이유’로 선택하기를 바라요. 옳은 이유란, 더 잘하고 좋아지기 위한, 그리고 스킬과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계발하고 스스로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갈고 닦기 위한 열망과 의지에요.”

모든 수업들에 이루려는 취지가 있지만, 이처럼 뚜렷한 수업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 그리고 교수님은 수많은 시도를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보여주셨다. 내가 들었던 수업 중 가장 변화가 많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목표 지향적이었다. 정말로 충실하게 들었고 충실하게 얻어간 이 수업을 최고의 온라인 강의로 추천한다.



| 장려상

좌충우돌 나의 비대면 접속기

나지석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코로나19가 빼앗은 새내기 생활

비록 특수대학원(야간)이지만 나는 부푼 기대를 안고 대학원을 등록했다. 내겐 대학시절이 두고두고 아쉽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공부보다는 용돈 벌어서 노는 게 더 좋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싼 등록금은 안 보이고 당장 손 안에 쥐는 50만원이 그렇게 커보였다. 대학에 들어왔으니 밴드 하나는 해야겠다 싶어서 베이스 기타도 사고, 역사기행 한답시고 놀고먹는 여행 소모임도 하나하고, 운동 소모임도 좀 들고, 연애도 하면서 제대로 학교에 나가질 않았다. 그렇게 새내기를 보내고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복학 이후에는 고시공부하다가 3년 만에 작파하고 학점 채우면서 허겁지겁 대학을 졸업했다. 20대 청춘을 나름 열심히 놀았지만 공부에 치열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원에 입학하면 학교도 꼬박꼬박 나가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제대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기대와 전혀 다른 새학기를 맞이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로 안정적 관리 수준이던 코로나19는 2월 말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지역 전파 및 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시설 및 집합시설이 운영 금지에 들어갔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학과도 계획된 신입생 OT를 취소하고 개강도 2주 연기되어 3월 16일 월요일 개강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개강하고 나면 학교도 나가도 교수님도 만나 뵈고 동기들도 생기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3월 16일 개강 이후 2주간의 비대면 수업, 4주 연장을 거쳐 1학기가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공지가 계속됐다. 언론에서 말하는 우울한 신입생이 바로 나왔다. 학교를 나가지 못하니 학생이 아닌 것 같았다. 인터넷 강의는 학창시절에도 체질에 안 맞았는데 대학원이라고 뭐 다를까 싶었고 그저 밀린 방학숙제를 해치우는 심정이었다. 단순히 석사학위만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온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예상과는 아주 달랐다.

PPT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그렇게 걱정 반 설렘 반을 안고 시작한 비대면 수업. 나는 여태까지 PPT에 슬라이드별로 녹화, 녹음이 되는지 몰랐다. 자치행정법 박문규 교수님께서서는 PPT 슬라이드 별로 녹음과 녹화를 통한 PPT 파일을 에듀 클래스에 올려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다. PPT에 강의안을 올려주시고 별도의 녹화, 녹음 파일을 첨부하여 슬라이드별로 실제 강의처럼 생생한 음성지원 형식으로 강의해주셨다. 슬라이드별로 음성이 자동재생되다보니 실제 현장강의보다 더 집중됐다. 강의내용도 촘촘해서 몇 번을 멈추고 스킵하고 다시 듣고를 반복했다. 계속해서 강의자료를 남겨주셔서 복습에 활용하기에도 용의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서도 막연하게 개론 수준에 머물러있던 내게 혼자서 편안한 시간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해준 비대면 수업이 오히려 장점이 많았던 것이다.

퇴근 후에 바쁘게 등교해서 허겁지겁 졸면서 강의를 듣고 녹초가 되어 또 1시간 남짓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강의를 듣고 주말에 복습할 수 있어서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 특수대학원 과정에서는 오히려 비대면이 가지는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박문규 교수님께서서는 에듀클래스에서 쪽지 및 댓글로 원우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다. 소리가 작다는 얘기가 있으면 다음 회차에서는 볼륨을 높여주셨고, 길이가 길고 오래 걸린다는 애로사항에는 PPT 파일을 나누고 중간에 넘어갈 수 있도록 쪼개서 부담 없도록 진행해주셨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강의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과 퀴즈를 출제하시고 댓글을 통해 원우들이 함께 생각과 의견을 나누도록 같이 토론해주셨다. 일방향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업로드 하는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당 강의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구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첫 회차 PPT 강의를 보면 주교재와 부교재에 대한 설명과 개론을 빠곡하게 설명해주셨고 강의 회차가 거듭될수록 강의교안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셔서 추가적인 자기주도적 심화학습이 가능하게 해주셨다. 자치행정'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리딩 케이스에 대한 판례 학습도 필수적인데 상당한 분량의 판례 원문을 발췌하여 PPT에 옮기고 핵심적인 청구취지나 청구이유를 요약 없이 원문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소수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다루는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만큼 페이스를 낮추고 더 폭넓게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셔서 무척이나 좋았다.

난생 처음 경험한 ZOOM 화상회의

다만 ZOOM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접속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컴퓨터 사양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수강 환경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법이 아니라 다른 강의 ZOOM 화상회의에서 일어난 일인데 모 월 모 일 ZOOM 화상회의로 강의를 대체한다는 공지만 있고 어떻게 접속하고 어디로 입장해야 하는지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 당시 안 그래도 5분, 10분 정도 야근하고 늦게 접속하는 입장이었는데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서 답답했다. 학과 사무실은 당연히 퇴근 이후여서 전화를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뽕족한 수가 없어서 계속 부재중 전화를 걸고. 교수님께 댓글과 쪽지를 남겼지만 강의 중이셔서 답변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다. 교수님 연락처나 다른 선배, 동기 분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연락을 해볼 텐데 새내기인지라 아는 연락처도 하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결국 자치행정법에서 2주차 우수 퀴즈 답변자로 선정되어 답안을 공유 해주시느라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된 원우 한 분께 급하게 카톡을 드려서 URL을 받고 간신히 입장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도 최초로 원

우분이 말씀한 회의방 및 URL은 이미 변경되어서 그 원우분이 다시 교수님께 문의하셔서 현재 URL을 보내주는 식으로 한 다리를 더 거쳐서 정말 힘겹게 입장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1시간을 헤매다가 입장해서 비대면으로 교수님의 얼굴만 뵈고 인사만 드리고 강의가 끝난 경험이 있다. 지금에서야 웃으며 에피소드처럼 꺼내보지만 당시에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연락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찌라는 거야! 하면서 짜증도 많이 나고 원우 한 분 연락처를 알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ZOOM 화상회의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처음 접해서 헤매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회의방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접속 매뉴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비대면 학습 담당 조교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기술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어떨까 싶다.

여러분 점수 드리려고 시험, 과제 내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법은 한 학기 동안 강의별로 짙막한 퀴즈를 내주셨다. 퀴즈는 전혀 부담 없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을 내주셨고 중간고사는 레포트로 대체하고 기말고사는 ZOOM 화상회의를 통해 당일 공지하고 당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진행했다. 개인적으로 게으른 편이라서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험과 평가라는 강제성을 통해 학습을 유도하는 게 더 좋은데 두 번의 시험과 매번 퀴즈를 통해 그나마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복습하면서 배우는 게 많았다. 단순히 인터넷 강의만 업로드 하는데 그쳤더라면 솔직히 절반도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원 그것도 특수대학원(야간)은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맞지만 아직도 학창시절의 연장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나로서는 강의 듣고 공부하고 시험보고 그게 익숙하다. 또 그렇게 시험과 평가를 통해 강의를 잘 듣고 있구나 싶어서 좋았다.

한 학기가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과제도 줄어들고 시험도 대체되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게 스스로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잠깐 편하자고 더 큰 걸 놓치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문규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총정리 겸 기말고사를 내주시는 자리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점수드리라고 시험 문제 내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 때 당시에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아했는데 지나고 보니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학습은 시험, 평가 및 피드백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가와 피드백이 없다면 오히려 학습의 효율성, 만족도가 대폭 떨어질 것이다.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지라 공부하는 적게 평가는 좋게 받고 싶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그렇다. 대학원에서 차츰 강의를 듣다보니 어느새 초심은 잃고 야근 및 회식이 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주말 내내 몰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겨우 따라갔다. 그나마도 비대면으로 강의자료가 계속 남아있었기에 맞춤형으로 복습할 수 있었고 퀴즈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교수님 및 원우분들의 답변을 보면서 보충했다.

이제 다음 2학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가오는 가을·겨울에는 코로나19 2차 웨이브가 전면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이렇게 된 이상 코로나19와 함께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 선제적으로 다음 학기를 완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미리부터 플랜을 짜고 대응지침을 공개하면 좋겠다. 1학기 때는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 될 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2학기는 다르다. 대학당국이 명확한 방침을 세우고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대면으로 진행하되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명확한 지침을 공지하든지 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리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도 미리 학점 계획을 세우고 수강과목을 정하는 등 대비를 하고 각자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한 학기를 버텨낼 것이다. 아, 물론 박문규 교수님의 자치행정법 강의는 더할 나위 없었다!



| 장려상

교수님의 성실함으로 만들어진 ‘효용이 높은 무위험자산’, 재무관리

오인주 (경영학부)

월요일 수업은 하루 동안 에듀클래스 댓글로 출석 체크, 링크는 한 학기 유지, 화요일 수업은 댓글 먼저 달고 강의 듣기.. 공강 없이 매일 달라지는 수업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가 절실히 필요한 한 학기였다. 그 중 강형철 교수님의 [재무관리]는 이번 학기에 들었던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가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었다.

| 월요일 | 화요일 | | 수요일 | | 목요일 | 금요일 |
|---------------------------------------|-----------------------------------------------------------|---------------------------------------|-----------------------------------------------|------------------------------------------|-------------------------------|------------------------|
| 출석체크 : 댓글 (하루 동안) 링크 : 한 학기 | 재무관리 출석체크 : 댓글 (일주일 동안) 링크 : 한 학기 | 출석체크 : 댓글 (15분 동안) 링크 : 하루만 | 출석체크 : 전자출결 앱 (30분 동안) 음성파일 다운 必 | 출석체크 : Zoom (채팅으로) 수업 시작할 때 | 출석체크 : Zoom 수업 끝날 때 | 출석체크 : Zoom 불시에 |

1)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배울 수 있는 재무관리

다사다난했던 이번 한 학기 동안 7개의 과목을 수강했다. 그 중 가장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됐던 강형철 교수님의 [재무관리]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일단, 재무관리는 경영학부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경영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해야 하는 과목 중 하나다. 강의는 기업의 자금 흐름, 즉 현금 흐름과 관련된 재무적 의사결정을 다룬다.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자본조달 의사결정,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 투자 의사결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한 자산의 가치평가, 자본예산 및 포트폴리오 이론, CAPM, 자본비용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실제 주식 시장의 상장종목을 선택해 분석해보기도 했다.

강의 계획서에는 자본 및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조달방법, 자본비용 계산, 투자안의 분석 및 평가, 자본예산 편성, 기업의 유동성 관리, 자본구조 정책, 배당 정책, 재무예측 등이 이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들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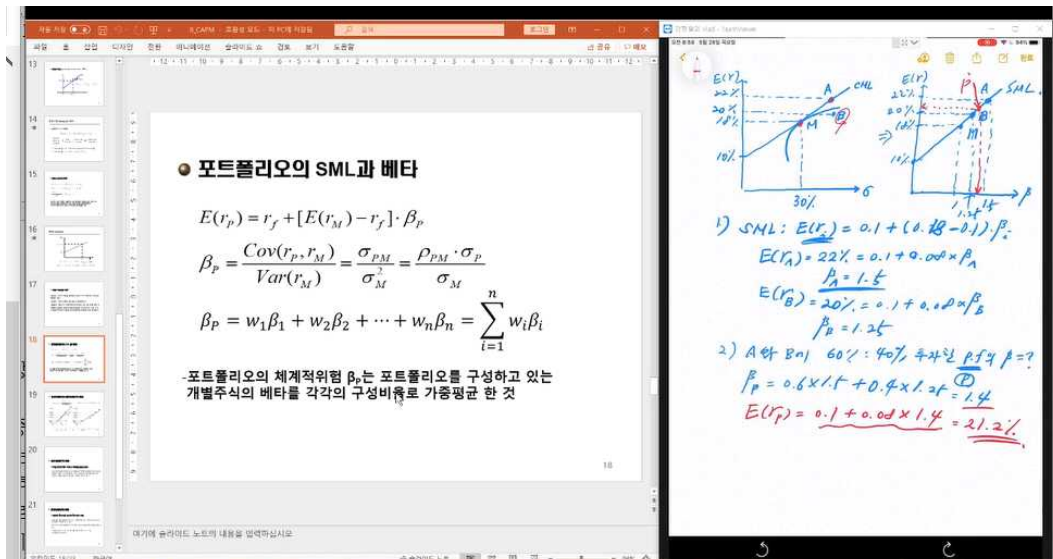
2) 수업 운영 방식

: 원격 강의의 효과성을 위한 교수님만의 인상적인 수업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강형철 교수님은 학사 공지에 발맞춰 빠르게 온라인 수업 방식을 강구하셔서 좋았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결정사항을 빨리 알려주셔서 마음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재택수업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빠르게 공지사항으로 안내해주셨고,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도 가장 빨리 알려주셨다. 시험을

언제 볼 것인지, 시험 범위가 전범위일지 시험 며칠 전에 알려주셔서 전전긍긍하며 마음 고생했던 과목과 대비되었다. 6월 23일에 재무관리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기말고사 일정 및 비대면 시험방식을 5월 18일에 공지해주셨다. 많은 과목의 시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계획을 짜야 하는데, 교수님의 빠른 공지사항 덕을 많이 보았다. ‘강의 진행에 누구보다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교수님의 성실함 덕분에 15주차 내내 불편함이 없었다.

강의는 정해진 수업시간 이전, 에듀클래스 자료실에 강의자료를 업로드해주시고 강의는 유튜브 링크로 공지됐다. 항상 미리 자료를 업로드해주셨고, 어려운 주제를 한 주차에 다 끝내려고 하시지 않으셨다. 유튜브로 강의 공유해주시는 게 정말 좋았는데, 타 플랫폼으로 5분마다 끊기는 강의를 듣다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강의 자체가 싫어지는데 교수님 강의는 끊김 없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목소리도 좋으신데, 준비를 많이 해오신 느낌도 절로 들 정도로 강의력도 너무 좋으셔서 진짜 잘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본예산 전반부 / 중반부 / 후반부’나 ‘증권의 가치평가 전반부 / 후반부’처럼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주셨다. 강의 초반에는 그 주에 배워야 하는 내용을 목차 형식으로 알려주시는데, 오늘 어떤 개념을 학습해야 하는지 명확히 키워드를 잡고 들을 수 있어서 습득력이 훨씬 높았다. 실시간 강의를 아니고 유튜브로 강의를 업로드해주시는 것도 정말 좋았다.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무 자체가 토론이나 팀 프로젝트보다는 강의식 수업 방식이 잘 맞는 분야인데다 계산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대면 강의로 진행했다면 계산 과정을 필기하느라 정작 중요한 교수님의 말씀은 잘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한 쪽에 강의 슬라이드, 다른 한 쪽에는 iPad 필기장을 열어두시고 이를 함께 녹화해주셨기에 강의를 200% 활용할 수 있었다.



● 포트폴리오의 SML과 베타

$$E(r_p) = r_f + [E(r_M) - r_f] \cdot \beta_p$$

$$\beta_p = \frac{\text{Cov}(r_p, r_M)}{\text{Var}(r_M)} = \frac{\sigma_{pM}}{\sigma_M^2} = \frac{\rho_{pM} \cdot \sigma_p}{\sigma_M}$$

$$\beta_p = w_1\beta_1 + w_2\beta_2 + \dots + w_n\beta_n = \sum_{i=1}^n w_i\beta_i$$

- 포트폴리오의 체계적위험 β_p 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주식의 베타를 각각의 구성비율로 가중평균 한 것

Handwritten notes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1) SML: $E(r_i) = 0.1 + (0.28 - 0.1) \cdot \beta_i$
 $E(r_A) = 22\% = 0.1 + 0.08 \cdot \beta_A$
 $\beta_A = 1.5$
 $E(r_B) = 20\% = 0.1 + 0.08 \cdot \beta_B$
 $\beta_B = 1.25$

2) A와 B의 60% : 40% 투자인 β_p 는?
 $\beta_p = 0.6 \times 1.5 + 0.4 \times 1.25 = 1.4$
 $E(r_p) = 0.1 + 0.08 \times 1.4 = 21.2\%$

: 과제물 및 성적 평가 방법, 학생과 상호소통 방법 등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중간고사를 수시과제로 대체하여 평가하겠다는 공지를 해주셨다. 그래서 약 2~3주에 한 번씩 과제가 있었는데, “기업형태 비교, 화폐의 시간가치 관련 과제, 증권의 가치평가 관련 과제, 투자안평가 기법 비교 case, 포트폴리오결합선 그리기 엑셀과제”로 총 5번이 주어졌다. 에듀클래스 과제제출 게시판이 활용되었고, 빠르게 평가하신 뒤 점수를 공지해주셨다.

강의를 충실히 수강하면 다 풀 수 있는 계산문제도 있었고, 관련 주제를 좀 더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계산 문제의 경우,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예제를 풀어주셨다. 재무라는 생소한 분야인데도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실력을 다져주시는 기분이 절로 들었다. 또, 최근 명목금리가 음(-)인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원인을 다양한 매체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과제가 기억에 남는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명목금리는 음(-)이 될 수 없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왜 일어날까? 우리나라에도 음(-)의 명목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등의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다.

|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일 | 점수(취득/배점) |
|----|---------------------|----|------------|-----------|
| 5 | 포트폴리오결합선 그리기 엑셀과제.. | | 2020/06/16 | 9/10 |
| 4 | 투자안평가 기법 비교 case | | 2020/05/19 | 10/10 |
| 3 | 증권의 가치평가 관련 과제 | | 2020/05/05 | 6/6 |
| 2 | 화폐의 시간가치 관련 과제 | | 2020/04/21 | 8/8 |
| 1 | 기업형태 비교 | | 2020/03/31 | 5/5 |

네 번째 과제는 ‘투자안기법 평가 비교 case’였다. 여기에서 단순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따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닌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좋았다. 배우고 익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이 추가된 것이다. ‘불확실성이 더 크고, 제시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외에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투자안 평가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를 스스로 고민하게끔 유도하면서 강의를 학생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감점된 학생이 많았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과제의 채점 기준을 공지해주셨다.

“기술의 불확실성 -> 할인율 증가, 추가 투자가능성 -> 기대현금흐름 감소로 이어져 결국 합성수지의 NPV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둘 다 포함되어야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포트폴리오 결합선 그리기’였다. 직접 KOSPI나 KOSDAQ 상장 종목 중에서,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2개의 상장종목을 선택해 이를 분석하는 것이 주였다. 여기서 어떤 주

식이 서로 관련이 적을지를 저마다 생각해 볼 수 있었고, KRX에서 과거 1년간의 일별 주가 자료를 가지고 투자비중을 달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볼 수 있었다. 강의 내용을 단순히 텍스트로만 접하는 것과 달리 실생활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재미있었다. 코로나 이슈로 더 변동성이 높아진 주식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에서 넘어서 데이터로 내 상상을 증명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참고하도록 엑셀로 교수님이 실습해주시고, 또 파일을 함께 올려주셔서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과제 채점 기준을 공지해주셔서 어디서 감점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험 또한 과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혼자서 시험을 대비하며 하는 공부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의 내용과 과제, 그리고 시험까지 잘 연관되어 있어서 한 학기 수업임에도 정말 알차게 배워갈 수 있었다.** 시험은 기말고사만 치러졌는데, 빠른 공지 덕분에 불확실성이 많이 줄었고 이 덕을 학생들이 많이 보았다. 비대면으로 치러진 기말 고사는 시험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에듀클래스 자료실에 문제가 업로드되었다. 자료실에 기말고사 1주전에 업로드해주신 답안지 양식을 출력하여 각자 풀고 나서 오전 11시까지 사진본 또는 스캔본을 과제탭에 업로드하는 방식이었다. 오전 11시 정각에는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제출시간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는 예상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공지됐다. 그리고 성적 평가도 빠르게 해주셨는데, 에듀클래스에 기말고사 풀이와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를 포함한 개인별 점수까지 pdf파일로 공지해주셨다. 개인별 학기 성적도 성적 입력 마감날에 공개되지 않고 그보다 빨리 확인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3) 학습 성과

: 수업을 통해 향상된 점 (학업성취도 향상, 학습동기 유발)

온라인 수업의 장점만을 쏙쏙 압축해놓았던 최고의 강의 덕분에 정말 재무가 재밌어졌다. 기말고사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풀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엔 이 흥미를 '재무경제학'이라는 과목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사실은 재무관리 재수강이었는데, 전에 수강할 때는 왜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개념이 쏙쏙 귀에 박히는 게 정말 신기했다. **과하지 않은 양의 질 좋은 과제는 학습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최고의 장치였다.** 특히 마지막 포트폴리오 그리기 과제는 현실과 밀접하게 전공 역량을 연결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수업 시간에는 엑셀(Excel)이 적극 활용돼서 더 흥미로웠다. 컴퓨터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함수를 적용하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손으로 쓰기만 하는 수업보다 훨씬 재밌었다. 교수님의 엑셀 실습 화면이 바로 녹화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해보기 훨씬 수월했다. 실시간 강의나 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다면 곱씹어 볼 수 없었을 테지만 녹화를 잘해주셔서 따라하기 편했다. 투자안평가 기법을 비교하면서 NPV법과

IRR법 등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를 엑셀로도 해보고, 과제로도 해볼 수 있었다. 세 차례에 걸쳐 듣고, 직접 쓰고, 엑셀로 실습까지 하니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

4) 강의 소감

: 이 강의를 추천하게 된 이유 및 소감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고 이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19 속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위험회피형 투자자와 같은 입장이었다. 많은 강의 속에서 재무 관리 수업을 만난 것은 참 큰 행운이었다. 마치 **효용이 높은 무위험자산을 가진 기분**이었다. 현실에선 그럴 수 없지만, 재무관리에선 교수님의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택수업 전환 대응을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며, 강의 자체의 퀄리티가 정말 높았다. 과제나 시험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이 빠르게 업로드돼서 학생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그 시간에 더 강의 자체에 집중하거나 시간을 잘 분배해 활용할 수 있었다. 성실함으로 빛어진 이 강의를 추천하지 않는 일은 큰 손해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좋았다.



| 장려상

미래꿀 강의

이경엽 (세무학과)

김정민 교수님의 투자론 강의는 비대면 강의 이전에도 인기가 많은 수업이었다. 일명 ‘꿀강의’. 여기서의 꿀강이란 학습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의미다. 강의 진도를 나가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개념 부분의 이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교수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이 그동안 학생들이 투자론 강의를 칭찬하는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명성이 높은 강의도 비대면 강의를 되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살필 수 없고 직접적인 소통이 되지 않아서 교수님의 열정이 덜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는 큰 오산이었다. 오히려 비대면 강의를 통해 기존의 대면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욱 수준 높은 강의를 되었다는 점에서 투자론은 강의의 질과 학생들의 강의 참여도를 높인 ‘미라꿀(Miracle+꿀) 강의’ 였다.

김정민 교수님의 투자론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강의다. 주로 주식 및 채권을 분석하여서 이론을 공부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목표로 한다. 나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재무관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공부가 아닌 암기를 위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쉽게 공부한 내용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갔다. 다시 한 번 대학교 강의를 통해 깊은 개념을 이해하고 싶어서 경영학과 강의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다는 투자론 강의를 듣기로 했다. 이 강의는 영어와 한글 강의를 열린다. 나는 영어 능력을 향상하고 싶었고 투자에 관련된 용어들이 영어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서 영어 강의를 수강 신청했다. 이미 온라인 강의로 학기가 개강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온라인 강의로는 상호 간의 질문도 힘들 것이고 대면 강의를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OT 강의에서 처음으로 줌을 이용해서 교수님과 학생들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했다. 강의 너머로 들려오는 교수님의 목소리가 어찌면 온라인 강의에서 첫 인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김정민 교수님의 목소리는 정말 좋았다. 이전 강의 평가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스윗(Sweet)하다’는 강의 평을 봤었는데 말 그대로 목소리 톤이 안정적이고 귀에 잘 들어왔다. 그리고 영어 강의이므로 영어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발음도 좋았고 이해가 쉬웠다.

교수님의 강의는 줌을 통해 이뤄졌고, 다른 강의와는 다르게 ‘모의투자’를 활용했다. 투자론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떻게 자산의 가격이 형성되는지,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모의투자는 이러한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해보기 정말 좋은 시스템이었다. 나는 주식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주식 투자를 할 만큼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 원금을 잃을 걱정에 주식 투자는 미래의 일로만 여겼다. 내가 생각한 모의주식 투자는 현실과는 다른 가상의 주식 세계에서 진행되는 가상의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의투자는 실제 주식 시장에서 나의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았다. 또한 수강 인원에 원금 천만 원을 주고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지 순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위 경쟁도 생겼다. 특히나 비대면이 요구되는 시점에 직접 마주하지 않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 김정민 교수님의 투자론 강의는 단지 이러한 모의주식 투자프로그램을 학생들 스스로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매 강

의 시간의 1시간 정도를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높은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줌의 마이크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수익을 올렸고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 의견을 공유했다. 마이크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채팅을 통해서 의견을 말했다. 직접 마주 보지 않았어도 학생들의 이야기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분위기였고 교수님은 다른 학생들도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질문을 유도해주셨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모의투자 순위가 거의 변동이 없을 때는 순위가 낮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수님은 전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됐다. 이 주식은 인기가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도 투자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각자의 전략에 맞게 투자한 주식에 달랐는데 어떤 학생은 어린이날에 맞게 어린이 장난감 주에 투자하거나 또 다른 학생은 합병 소식을 예측해 큰 수익을 거두었다. 이렇게 모의투자는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고 실제의 주식시장에서도 강의 내용처럼 주가가 움직이는지에 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강의의 연장선이었다. 과제처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하는 활동이었고 흥미로웠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했다.

김정민 교수님의 소통 방식은 온라인 강의에서 더욱 빛났다. 다른 강의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를 대부분이거나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투자론 강의에서는 교수님은 계속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고 대답을 유도했다. 내가 생각하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여기서 나타났다. 대면 강의에서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서서 대답하기가 부끄러운 경우가 있다. 목소리가 작은 학생의 경우 강의 시간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채팅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가 쉽다. 나 역시 강의를 들을 때 대답을 잘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강의에서는 대답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예습해야만 알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했고 만약 학생들이 대답이 없을 때는 대답을 하라고 격려해주셨다. 특히 김정민 교수님 강의의 가장 좋았던 점은 틀린 답을 말해도 면박이나 꾸중이 아닌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의견을 보충해주셨고 이해가 됐냐고 물어봐 주었다는 점이다. 나도 틀린 답을 몇 번 말하긴 했지만, 오히려 교수님께서서는 나의 틀린 답이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셨고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셨다. 나는 자신감을 얻었고 강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강의였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됐다. 굳이 캠을 켜고 마이크를 말을 하지 않아도 채팅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상호소통이 가능했다. 영어 강의였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을 했고 외국인 학생들도 영어로 채팅창에 대답했다. 외국인 학생들이 강의 도중 대답을 하는 것은 보기 힘든 장면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을 했고 온라인 강의에서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질문도 하는 것을 보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질문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변한 놀라운 점은 강의에 대한 집중도였다. 3시간 강의였는

데 대답을 하면서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대학 강의에서는 암기 위주의 강의가 아닌 직접 공부하고 개념을 좀 더 생각해보는 강의를 원했는데 투자론 강의에서 대학 강의의 면모를 느꼈다. 강의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남아 강의가 끝난 후 복습을 할 때도 더욱 이해가 쉬웠고 내가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책을 찾아보게 되었다.

교수님의 투자론 강의는 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비대면 강의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줌에는 여러 가지 필기 기능이 있다. 또한 필기 색깔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다른 색깔의 필기는 눈에 잘 들어오고 더욱 이해가 쉬웠다. 대면 강의에서는 직접 PPT 슬라이드에 필기할 수 없다. 하지만 줌에서는 PPT 슬라이드에 직접 필기가 가능해 설명과 함께 바로 수식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편하고 강의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다. 줌에는 다른 화면 공유 기능도 있다. 교수님께서 피피티 이외의 다른 화면을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할 수 있는데 학생들도 원한다면 자신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었다. 줌이 편하다는 것을 느낀 점은 바로 교수님께서 엑셀을 이용하여 강의했을 때이다. 일련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거나 이러한 수식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 교수님께서 엑셀을 이용하셨다. 평소의 대면 강의였다면 교수님께서 엑셀을 이용해 수식을 도출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였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컴퓨터로 엑셀을 켜서 교수님을 따라할 수 있었다. 김정민 교수는 이러한 점을 활용했고 학생들이 엑셀의 과정을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한 번은 내가 엑셀에서 어떤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채팅창에 남겼다. 교수님께서 채팅창으로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다. 이렇듯 실제 강의실에서는 엑셀의 과정을 따라 할 수 없지만, 비대면 강의에서는 자신의 컴퓨터로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고 그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주가를 분석할 때 교수님께서 Yahoo Finance 사이트를 화면 공유해서 활용했다. 여기서 학생들이 채팅창으로 어떤 종목의 주가나 베타를 살펴보고 싶다고 의견을 말하면 실제 그 종목을 검색해서 주가 분석을 하였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집중력이 높아졌고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준 학생들 의견을 모두 교수님께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단인 시험이 온라인으로 치러진다는 점이다. 온라인 시험은 몰래 책을 볼 수 있고 다른 학생들과 시험 문제를 의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미 다른 대학, 우리 대학에서도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김정민 교수의 평가 방식은 온라인이었다. 처음에는 온라인 시험이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수님께서 형평성을 고려한 시험 문제를 냈다. 다른 강의의 시험과의 차이점은 단순히 공유하기가 쉬운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이 아닌 오픈북(Open Book test) 시험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써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문항 당 시간을 짧게 주어서 학생들이 서로 모여 의견을 공유할 시간을 배제했다.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시험은 사실상 채점자가 일일이 학생들의 답안을 읽고

채점을 해야 하므로 채점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투자론 강의는 다행히 35명 정도의 소규모 강의였고 교수님께서도 힘든 채점을 맡으시면서 보다 공정한 시험 평가를 위해 노력하셨다. 당시에 코로나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온라인 시험이 더 적절했고 시험의 평가방식에도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의투자 보고서도 평가 요소로 선정해서 학생들이 모의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였고 모의투자를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투자론 강의를 들은 후포트폴리오에 대한 심층적인 개념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져서 스스로 찾아보는 공부가 되었다. 비대면 강의를 이렇게까지 효율적이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교수님의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빛을 냈고 학생들도 이러한 열정에 응해 의견을 많이 내며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던기적의 강의(Miracle Lecture)였다. 이번 학기는 온라인 강의로 인해 자칫하면 수업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론 강의는 즐겁게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이 깊어지고,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로 진행된 나의 대학 생활 강의 중 최고의 미라클 강의였다.



| 장려상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이재준 (경영학부)

중소벤처 기업의 이해 수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관련하여 전반적인 학문적, 정책적 이해를 돕는 수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개념, 역할 및 현 상황을 학습하여 중소기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학습합니다. 이어 히든챔피언, 유니콘 기업처럼 중소기업의 성공사례를 탐구합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해 학습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이 복합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 1학기에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학습과정에서 기업 CEO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기업을 견학하여 현장토론을 함으로써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쌓는 실용적 학습방식도 원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개강하기 전에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 단체 카톡방을 미리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메일 주소도 알려주셨기에 학생들은 이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개강 후에 단체 카톡방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의 전파사항 공지 역할입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으면 에듀클래스도 물론 활용하셨지만 카톡방에도 알려주시며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배려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출석 확인 역할입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수업 영상 속에 출석체크를 위한 문제가 숨겨져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출결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올리는 것으로 출석 확인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 때도 단체 카톡방이 활용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생들이 궁금한 질문을 올리고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는 창구 역할입니다. 수업 관련하여 학생들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단체 카톡방에 자유롭게 질문을 올릴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빠른 피드백을 주시며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기본적인 수업 방식은 수업 영상의 경우 에듀클래스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주소를 알려주셔서 학생들이 주소를 복사해서 접속하여 영상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수업 영상을 보면 피피티 화면만 보이는데 교수님께서 목소리로만 출연하여 설명을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영상 안에 퀴즈가 숨어있어서 퀴즈의 정답을 단체 카톡방에 제 시간에 보내야만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영상을 정해진 시간에 학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업 자료인 경우 에듀클래스에 미리 PDF 파일을 올려주셔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수업 자료는 수업 영상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부가적인 자료들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총선 전에 중소기업의 지원책에 대해 학습할 때였는데 각 정당의 중소기업 지원 공약 및 정책을 정리해서 올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수업 중간 중간에 과제를 내주셨는데 처음에 내주신 강소기업 분석 보고서만 이메일로 제출하고 이후에 내주시는 퀴즈 및 과제는 전부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 되었습니다. 요구 내용도 복잡하기 보다는 간단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경우 특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중간고사는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배운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의 외부환경 분석 방법 중 하나인 PEST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업 선정 방식은 자신이 창업할 예정인 가상의 회사를 상상해도 되고 아님 관심 있는 산업 분야만을 선정해도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코로나19라는 외부환경으로 인해 중소벤처 기업들이 힘든 현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산업의 외부환경을 스스로 분석하며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중간고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관심 있는 것을 골라 PEST 분석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도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협업을 통한 마인드맵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무작위로 팀을 구성해주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어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협업하여 마인드맵을 공동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어는 수업범위 내에서 출제하셨고 암기 보다는 전체적 이해를 요구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이 앞으로 비대면 상태로 협업을 진행할 일이 많아질 것이며 이를 미리 연습해본다는 취지로 기말고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기말고사를 치루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 협업하여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팀원들이 모두 고르게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빙 근거 첨부를 요구하시는 등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이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 배운 것을 넘어 수업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일방적인 지식전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배운 지식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용해보고 궁금한 점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업의 내용이 단순히 책 속의 글자를 벗어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중간고사 PEST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저는 패션 제조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를 분석 산업분야로 정했었습니다. 이 때 '제가 만약 패션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벤처 기업의 경영자라면 어땠을까'라는 심정으로 진지하게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외부환경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덕분에 지금도 제가 분석한 내용이 머리에 생생히 기억납니다. 또한 기말고사 때 잘 모르는 팀원들과 온라인상으로 협력하

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태도는 제가 앞으로 중소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수업은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추천한 이유는 이 강의가 학생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수업은 단순 지식전달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수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수업은 제가 생각한 대학 강의의 훌륭한 본보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의 몸이 기억하는 지혜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이 공모전을 왜 기획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이유는 1학기의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의들 중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앞으로 진행될 비대면 수업들에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짐작한 이 이유가 올바른 추론이라면 제가 추천한 중소벤처 기업의 이해 수업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의 상황이라 자칫 나태해지거나 학습결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업은 학생들이 꾸준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단순 지필 시험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발산시키며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1학기에 중소벤처 기업의 이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했으며 더구나 이 기쁨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려상

토양을 기반으로, 한 그루의 나무로 성장한 수업

최영준 (국사학과)

2020년 1학기는 누구에게나 생소했습니다. 개강이 밀리는 사태가 발생했고, 대면수업 및 대면시험 역시도 일부 금지되었습니다. 저 역시, 2015년에 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대면”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사용해본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학교, 교수님, 모든 학생들에게 생소하였습니다. 해결책이 요구되었고, 학교 측에서는 Zoom 및 Teams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업보다, 그 수업을 직접 진행하셔야하는 교수님과, 그 수업을 직접 수강해야 하는 학생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길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제시한 위의 방식은 효율적인 수업에 여러 제약 요소가 존재합니다.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교수님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누구에게나 생소한 학기에, 수업을 진행하셔야하는 교수님, 수업에 참가해야하는 학생, 두 집단이 수업을 만들어가는 한 학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수업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셨겠지만, 저는 특히나 경제학부 최경욱 교수님의 국제 금융론 수업을 우수 원격강의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당 수업은, 단순히 학생들이 성적을 부여받는 공간이 아닌,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학기를 마치고,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성적과 관계없이, 웃으며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교수님께서 사전에 명확히 제시한 수업진행방식, 수업 및 성적 평가의 혼란 방지를 위해 교수님의, 여러 가정 설정, 또한, 소통부재 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의견 반영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활용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불안감이 경감되었습니다.

먼저 개강 이전에 교수님께서서는 수업진행방식을 사전에 공지하셨습니다. 일부 수업들은 2주차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수업진행방식이 확정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늦은 경우 3~4주차까지도 확정되지 못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수강할 것인 가”라는 수업 선택권이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금융론 수업은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수업진행방식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존 학기와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수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교수님은 사전에 여러 가정을 고려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할 임무가 있으시기에, 출석확인, 과제 및 시험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출석체크의 경우,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실에서 해당 주차 수업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출석으로 인정되었고, 비대면 시험으로서 기말고사가 구글폼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나 장비적인 오류가 가정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실에 오류가 발생한 적도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신 교수님은 개인 유튜브에 주차별 강의를 게시해주셨고 이메일을 통해 학생이 출석인정을 요구할 시, 출석 확인도 진행하셨습니다. 한편, 구글폼으로 진행된 기말시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오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학생들이 노트북보다는, 모바일 네트

워크를 통해 휴대폰으로 응시할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또한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가정도 설정되었습니다. 비대면 시험이기에 학생들끼리 모여 시험을 볼 수 있기에, 기말고사 방식에도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기말고사는 50분에 50문제를 풀어내어야만 하는 형식에 더하여 문제의 순서가 학생들마다 다르게 제시되었습니다. 학생들 간 토의하는 부정행위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상 가능한 상황들이 가정되어, 학생들의 혼란 및 시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수님과 학생 간의 오해가 사전에 방지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전술하였듯이,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 수업 전반 및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사전에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대면 중간고사 금지”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수님은 학생들과 중간고사 일정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과감하게 중간고사 실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조사되었고, 만약 실시된다고 하였을 때, 세부 일정까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고사를 생략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과반수를 넘겨, 중간고사가 취소되었고, 기말고사가 전체 성적의 9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자율성이 높아진 반면, 학생들이 기말고사 점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사례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열려있었습니다. 매 주차 수업에 대한 질문은 에듀클래스의 Q&A 게시판, 그리고 교수님과의 이메일 소통이 언제나 열려있었습니다. 특히나 14주차에, 교수님은 학생들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소통이 아쉬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 금융 특강”을 진행하셨고, 이 특강 역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교수님과 학생은 한 학기동안 대면할 순 없었지만, 소통을 통한, 한 학기 수업이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눈 여겨 볼 점은 이러한 과정들이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강의 결정 전,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있지 않아 비대면 강의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과 개인적 장비 미보유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업이 학교 시스템이 아닌 Zoom이나 Teams 같은, 타사의 프로그램이 이용된 경우가 많았고, 한 학기 동안 캠이 보유되지 않았거나, 자취방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아, 한 학기 내내 불편을 겪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경욱 교수님은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강의실과 에듀클래스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캠과 같은, 추가적인 장비를 학생들이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 및 강의 자료들이 일괄적으로 에듀클래스에 게시됨으로써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해야하는 불편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학생들이 기존 학기에, 수업 전 에듀클래스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이 적극 활용됨으로써, 기존 학기와 특별히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한 학기 수업동안 많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1학기, 첫 비대면 학기로서, 국제 금융론 수업은 학생들과 교수님에 의해 함께 만들어 졌습니

다. 수업진행방식, 성적평가항목에 대한 교수님의 가이드라인, 이메일과 에듀클래스라는 소통창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즉, 토양으로서, 구축된 시스템과 줄기로서, 교수님의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소통 창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잎사귀를 형성하여 한 그루의 나무 같은 수업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에 어떠한 불신과 오해, 나아가 마찰이 생기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치며 웃을 수 있게,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혹시 모를 2학기 비대면 수업을 준비해야합니다. 2학기 대면 수업도 확실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것에 질려버렸고, 여름 휴가철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많진 않습니다. 따라서 방학기간동안 비대면 2학기 역시도 준비되어야합니다. 최경욱 교수님의 국제 금융론 사례는 “서울시립대학교는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 구축의 역량을 보여주었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이 만들어낸 수업이 “비대면 강의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2학기 역시도 비대면 학기로 진행이 된다면,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비대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